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신음하듯 말씀하시자, 한 로마군인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 주었다.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토해 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통에 지친 사람이 “이제 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선언이요, 완성의 선포였다.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끝났고,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를 비극으로 몰아갔던 하늘과 땅의 분리를 끝내셨으며, 인간들 사이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는 선언이다. 이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교제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로마 장교가 말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실제로 염두에 두셨던 것은 ‘성전’과 관계되어 있었다. 솔로몬이 세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훗날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재건된 성전,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축이 시작된 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는 성전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이다.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장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엮으셨다”(요 2:14~15) 그러자 유대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 주겠소?”(요 2: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요 2:19)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요 2:21)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흘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셨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이다. 여기에서 ‘사흘’이란, 성금요일에서 부활주일까지의 시간인 3일이다. 성경에서 ‘셋(3)’이란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던 길이 사흘 길과 같은 의미이다. 이때 ‘사흘’은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 그리고 삶을 위해 바치는 헌신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는 죽음과 어둠의 사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처럼, 신앙과 삶의 완성을 향한 사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바란다. 그리고 결국 “이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